



지금까지 있었던 「아동수당」이 4월부터 「자녀수당」으로 바뀝니다. 이 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아이의 수에 관계없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6월에 수당을 받기 위해 빨리 신청합니다.

●자녀수당에 관한 향후의 스케줄(★표의 지급액은 자녀 일인당의 금액입니다)

2010년 4월	자녀수당법 시행(1일) 시구마치무라가 신규대상자 접수 개시
6월	★1회째 지급(4, 5월분 2만 6000엔)
10월	★2회째 지급(6~9월분 5만 2000엔)
2011년 2월	★3회째 지급(10~1월분 5만 2000엔)

◆각시마치의 창구

후지미시⇒육아지원과

☎ 2 5 1 - 2 7 1 1

후지미노시⇒육아지원과

☎ 2 6 2 - 9 0 3 3

미요시마치⇒육아지원과 아동복지계

☎ 2 5 8 - 0 0 1 9

★자녀수당은 중학교 3학년까지

현재 일본은 어린이의 수가 매우 적어진 상태입니다.

어린이는 사회의 보물입니다.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물론, 일본 전체적으로도 생각해 보자고 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까지의 「아동수당」을 대신하는 「자녀수당」입니다.

# 4월부터 중학생까지의 아이에게 “자녀수당”이 나옵니다

외국적시민도 대상이 됩니다

수당은 0세부터 중학 3년생(15세 생일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이.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금액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당 13000엔입니다.

★외국적시민도 대상으로 모국에 있는 아이도 포함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를 4월 중반경에는 관공서에서 발송 가능하다고 하니 벌써 수중에 들어와 있겠지요. 서류는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이가 모국에 있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늦어도 특례로서 9월까지 신청하면 4월부터 거슬러 지불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①3월 31일 시점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아이가 미취학 또는 중학 1학년 이하인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 중학 2,3년생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소득제한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① 신청자 이름의 보통예금통장 ②후생연금 등에 들어 있는 경우는 의료보험증 ③인감 등입니다. 지급은 제 1회째는 6월 (위의 표를 참조) 이지만 이 지불기간에 받으시려면 5월 중순경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가족 사정에 맞추어 빨리 신청하도록 권합니다.

[www.ficec.jp/foreign/](http://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립고교가 4월부터 수업료 무료

4월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무료로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수업료에 상당하는 대략 12 만엔을 국가가 부담하고 학생으로부터는 징수하지 않으며 그 외 사립 고등학교는 세대의 연 수입에 따라 대략 12 만엔에서 24 만엔을 고교 측에 지급해 부족분을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4월 1일부터 국공립과 사립고교 계다가 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의 고등과정이 수업료의 실질무상화의 대상이 됩니다. 또, 외국인 학교는 각국의 대사관 등을 통해서 고교에 상당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학교나 이른바 인터내셔널 스쿨 등이 대상이 됩니다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장관 하의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기관을 마련해 검토한 후 금년의 여름을 목표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적현민을 위한 임대주택빌리는 방법 · 생활 할 때의 룰」

외국적시민으로서는 집을 찾는 일은 고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거리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사이타마현현민생활부국제과에서 발행한 것이 위의 타이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국어 포르투갈어 등 각 국어로 번역되어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계약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 임대주택을 빌릴 때까지의 흐름, 이사할 때의 수속 등이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필요한 분은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고가 있는 한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는 사이타마현 국제과 (☎048-830-2717) 로 문의하여 주세요.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간다 아우무

일본에서는 4월에 신년도로 바뀌는 곳도 많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겨우 익숙해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런 일본이기 때문에 더욱 일어날 수 있는

「5월병」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는 많은 일본인에 있어서 그 달은 기대나 희망에 넘치지 만 좀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5월의 골든 위크를 지날 무렵부터 기분이 답답해지는 등 「우울증」을 닮은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일본의 최고 학부인 도쿄대학에서 격렬한 수험 전쟁을 끝내고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목적을 잃어 버린 무기력한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5월병」의 제일의 대처법으로는 우선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학생시절의 친구 등 이전의 환경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황도 보고할 겸 동창을 만나거나 기분 전환으로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 놀러 오세요. 반드시 기분이 가벼워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전 에코포인트 연장!!

지상디지털시대가 머지 않아 옵니다. 텔레비전 등의 준비는 끝났습니까? 3월에 일단 종료한 가전 에코 포인트 제도입니다 만 그린 가전으로 불리는 에너지 절약의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냉장고에 대해서는 금년의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구형에는 포인트가 붙지 않습니다만 신청도 간단하게 되었으므로 구입 기간을 차분히 검토해 영리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코포인트는 ①신청서(전기상)⇒②메이커의 보증서⇒③영수증/매상명세서(원본)⇒④가전리사이클 건의 배출자용이 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기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www.ficec.jp/living/

●6 개국어판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